과거의 꿈 통한 미래로의 손짓

'서울 설화 대전'을 보고

김 상 아
〈미술학 석사 2기〉

서울 정도 600년의 한 행사로 마련된 이번 대형전시회는 서울 특별시의 주최로 94년 10월 18일부터~11월 16일까지 약 한달동안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다. 한 개인의 그림을 이처럼 커다란 행사에서 개인전으로 다룬것은 보기 드문 일로 화가 김기혁의 역량이 유감없이드러나고 있었다.

설화(說話)하면 한 민족에게 전승되어 내려오는 이야기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이 속엔 신화·전설·민담·설화·우화 등을 포괄해서 말하고, 설화(說畵)는 설화화(說話畵)의 준말로 설화(說話)의 내용을 형상화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남간(南澗) 김기혁은 우리 선조들이 살았던 모습, 즉 과거의 시간(꿈)을 추적하는 것으로 보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회화로서 이끌어 내느냐에 주력한다고 한다. 흔히 예술은 그 시대를 반영한다고 하지만 그의 그림은 과거의 시간들을 유추해 내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지난 시간에 대한 조형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을 재고하게 한다.

카알 융은 전설과 신화는 집단적 무의식의 꿈이며 집단적 시고 감정의 원형이라고 보았다.

즉 설화란 삶의 자체를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김기혁의 현란하면서도 소박한 작품경향을 보여주는 두 작품. (좌)청계천 연날리기 (우)풍생도(쭈노圖).

진한채색의 대비·기교없는 통일성 상상력과 설화가 접점 이룬 작품

설화(說畵)를 통해 상상의 세계, 있음직한것, 환상적인 것을 추적하는 과정이 과학과 비슷하기 때문에 과학이 발달된 나라는 설화도 발달되어져 있다고 한다. 김기혁은 80년대 부터 맺 것을 그림에 담아내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하는데 원래는 영문과 교수로서 있으면서 끊임없이 안에서 고동치는 것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해 왔다고 한다. 미술을 전공하지 않은 자로서 마술제로부터 받은 모멸감이나 평판에 아랑곳 하지 않고 2~3년마다 수십점이 넘는 대작들을 선보여 왔다. 그가 택하는 기법은 간혹 답재화를 하는 것을 제외하고 거의가 원색들의 대비를 잘 살리는 진채화이다. 원색들이 서로 강하게 어우러지고 있어 언듯 보면 현란한 것 같지만 기교를 부리지 않고 그 안에서 평면감을 강조하고 있어 표현의 통일성을 느낄 수 있게 한다. 남간 김기혁의 상상력과 설화(說話)의 두 원이 하나의 접점으로 만나서 과거의 시간을 펼쳐 놓는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과거의 시간속에서 새로운 꿈을 찾을 수 있어야 할 것 같다. 과거를 되새기는 작업이 단지 그것에 젖어들기 위함만이 아니라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해 보이기 위한 또 하나의 발돋움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많은 예술가들의 작업이 사회적인 요소를 다루는 데 반해 남간 김기혁의 작업은 역사적 맥락에서 보여 지고 있다. 이제 무엇을 표현하든지 간에 단순히 제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기 위한 노력이 끊임없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마 지금도 그는 닭은 물이 흐르는 어느 마을 어귀에서 선조들의 얘기를 듣고 있을 것 같다.

쉼터

술, 이렇게 마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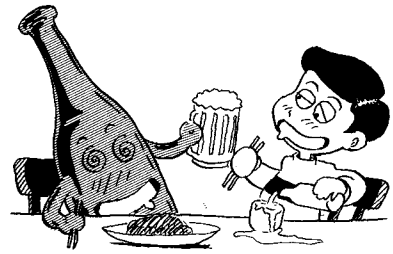
최 현 림
〈의대교수 가정의학〉

연말이면 술을 마실 기회가 많아진다.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이왕 술을 마실 양이면 어떻게 하면 몸에 덜 해롭게 마실 수 있을까?

우리가 마신 술은 상부 소장의 점막에서 대부분이 흡수되고 위장이나 대장에서도 상당부분이 흡수된다. 마신 술은 대부분 간에서 대사되어 아세트알데하이드로 변하고 이것은 세포 속의 아세트알데하이드 분해효소에 의해 파괴되어 아세테이트로 산화된다. 같은 술을 마시는데도 개인에 따라 얼굴이 붉어지는 사람이 있고 잘 취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은 이 분해효소의 양에 따라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대사되는 속도와 양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면 술을 어떻게 마셔야 할까?

첫째, 술은 천천히 마시자. 알코올 대사는 0차 방정식을 따른다. 따라서 아무리 혈중 알코올이 높더라도 대개 시간당 0.015gm%가 대사된다. 그러므로 술이 대사되는 속도를 감안한다면 독한 술일수록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다.

둘째, 술을 마실 때는 안주를 충분히 들자. 술은 칼로리만 공급할 뿐 인체에 비타민이나 무기질은 물론이고 아무런 영양소를 공급하지 못하므로 술을 마실 때는 안주를 충분히 드는 것이 좋다. 또 알코올이 흡수되는 속도도 공복시에 빨라지므로 안주를 먹음으로써 알코올을 천천히 흡수되게 한다. 특히 우유를 술 마시기 전이나 중간에 마시게 되면 알코올의 자극에 의한 위벽의 손상도 어느정도 보호해 주며 알코올이 흡수되는 속도나 양도 줄어들게 한다.



셋째, 술을 섞어 마시지 말자. 다른 종류의 술을 섞어 마시게 되면 알코올의 흡수 속도가 훨씬 빨라지고 술에 가미된 당분이나 불순물, 각종 향료의 혼합 반응에 의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양주와 맥주를 섞어 마시는 소위 폭탄주란 것이 쉽게 취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넷째, 과음하지 말자. 알코올의 혈중 농도는 알코올을 섭취하는 속도와 양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알코올농도가 0.05~0.1gm%이면 사고력이나 판단에 장애가 오기 시작하며 0.1~0.15gm%가 되면 정서적 불안정과 똬바로 걸을 수 없게 되고, 0.15~0.25gm%가 되면 횡설수설하게 되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의식이 몽롱해진다. 또 0.3gm%가 넘게 되면 혼수가 오고 0.4gm%가 넘게 되면 생명의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독한 술은 대사 속도 늦어 천천히마셔야

우유는 위벽 보호 및 알콜 흡수 지연시켜

다섯째, 술을 마신 뒤에는 최소한 3일간의 휴식기간을 가져야 한다. 술을 자주 5~10년 마시면 알코올로 인하여 90%이상이 지방간이 생긴다. 이는 간에서 중성지방의 생성이 촉진되고 간장 내에서의 지질대사가 감소하며 간 조직으로부터 지질단백의 유리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간에 축적된 지방이 다시 간에서 분해되어 없어지는데는 최소한 3~4일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차라리 간혹의 지나치지 않는 과음이 매일 소량의 음주보다 낫다.

구세대 연애론 속의 X세대 인물과 소품

영화시사회

유영진 감독 '그리움에는 이유가 없다'

X세대란 어떤 특징을 가진 세대일까? 순간적 쾌락에 빠져 있는 오렌지들일까? 아니면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이뤄내려는 엉성과들일까? 이런 젊은 X세대들의 자기만의 욕구는 부정적일 수도 있지만 때론 진취적이고 창조적이며 반전적인 모습이 될 수 있다. 진짜 X세대의 가치관만은 획일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개성을 추장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아그네스를 위하여'의 유영진감독이 2년만의 공백끝에 다시 메가폰을 잡은 영화 '그리움에 이유가 없다'는 그런 상반된 X세대의 사랑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순간의 쾌락만을 위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여성과 인스턴트식의 사랑에 반기를 들고 사랑을 위해 목숨까지도 던지는 남자의 이야기이다. 유감독은 이 작품에서 서로 다른 이 두 X세대 남여가 사랑을 이루어 가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사랑과 자유의 의미를 발견하고자 했다.

정희의 추천으로 한 기업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초빙된 미국 공학연구소 연구원 박찬우는 마중나온 윤수진에게 호감을 느껴 사랑의 메시지를 보낸다. 정희의 적극적인 구애에도 불구하고 찬우는 수진과 사생활 보장과 불간섭을 원칙으로 계약동거를 시작한다. 수진은 회사원에서 누드모델 또 카레이서로 전계되지 않은 자유와 쾌락만을 탐닉하지만 찬우는 이를 이해하고 수진이 변화하길 기다린다.

수진은 유럽횡단 자동차 경주 참가가 결정되자 찬우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파리행 비행기를 타지만 정희와 그녀의 카레이서 동료의 음모와 배신으로 인해 곤경에 빠지게 되고 대국의 폭력조직에 잡혀가게된다.

수진을 향한 찬우의 그리움은 찬우를 태국까지 가게 하고 수진에게 새로운 사랑에 대한 깨달음을 주어 비로소 두사람의 사랑은 완전한 결실을 맺는다. 한 여자를 한남자가 사랑이 이루어질 때까지 쫓아다닌다는 소재면에선 다소 진부하고 그 사랑이 모진 고난 끝에 이루어진다는 유치한 해피엔딩이라는 생각도 든다. 그렇지만 이 영화는 깊이 없는 사랑에 익숙해져 있으면서도 영혼의 사랑을 꿈꾸는 이 시대 젊은이들의 고민을 되짚고 그리움이란 가까이 있는 그리고 현실적인 욕망이라는 또 다른 정의를 내렸다는 점이 돈보인다.

이 영화에선 신세대의 사랑을 다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등장하는 자동차들의 신나는 경주장면과 원통시스템으로 만든 신세대형 오피스텔, 슈퍼컴퓨터등은 관객들의 눈요기가 되기엔 충분하지만 6, 70년대의 구식 연애이야기에 X세대 인물과 X세대 소품만 들어가 뒤가 조화가 되지 않는다. 또 신인 배우들의 어눌한 대사처리같은 수준이하의 연기와 군데군데 난잡하게 나오는 섹스신은 '한국영화는 안돼'라는 생각을 갖게한다.

그러나 과감하게 스타를 배제하고 신인들을 캐스팅했다는 점과 영화속에서의 모델 하우스를 모건설회사로부터 지원받았다는 점등은 침체되어 있는 한국영화가 새삼게 나아갈 다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김태훈 기자〉

◇주인공인 수진과 찬우. 이들의 애정행각에서 진실된 사랑과 자유의 의미를 엿볼수 있다.

공연안내

애니메이션 영화제 개최

소극장 오늘은 개관기획시리즈 그 네번째 행사로 영상연구회 '마루'의 공동으로 애니메이션 영화제 '만화영화의 세계'를 개최한다.

영상혁명, 멀티미디어 시대의 한국 만화영화의 실질적비전을 모색해보고자 열리게 되는 이번 행사는 만화영화의 이해라는 주제의 강좌, 애니메이션 창작자의 창작설명회, 작품강상회, 한국애니메이션 길찾기라는 주제의 포럼등으로 다채롭게 마련된다.

기간 : 11월 19일부터 12월 4일까지 14일간
시간 : 평일 오후 4,5,8시/주말 오후 3,5,7시
문의 : 763-8538
관람료 : 일반 4천원/단체, 예매 3천원

극단 사조, '변신'공연

극단 '사조'는 비인간화 되어가는 인간의 구제문제를 다룬 카프카의 '변신'을 공연한다. 주인공 '그리고르'는 어느날 아침 갑자기 벌레로 변하게 된다. 벌레로 변해 버린 그레고르로서 대한 미움과 멸시의 시선을 그를 결국 죽음으로 몰아버린다. 그가 비인간화되는 과정에서 보이는 몸부림과 외침에서 물질 문명에 길들여진 우리 자신을 뒤돌아 볼 수 있을 것 같다.

기간 : 12월17일부터 12월 30일까지
시간 : 오후 4시, 7시
장소 : 문예회관 소극장
관람료 : 1만2천원
문의 : 783-4050

문화단신

'대학신보', 윤동주 사후 50주년 기념 일본탐방

'한국대학신보사'에서는 윤동주 사후 50주년을 기념해 고인의 일본내 발자취를 찾아 탐방을 실시한다.

전국 대학생 및 대학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행사는 후루오카, 오사카, 나라, 교토지역을 돌아보게 된다. 특히 시인이 체포되기 전까지 다니던 동지사 대학에 들러 동지사대학 고려 동창회와 공동으로 추모식을 거행하고 복역과 죽음을 당한 후루오카 형무소를 방문해 시인의 넋을 위로하는 위령제를 갖는다.

기간 : 1995년 2월 9일부터 2월 13일까지
접수기간 : 95년 1월 21일까지
접수장소 : 종로구 종로2가 YMCA빌딩 5층 국제학생여행사
문의 : 733-9494, 732-9568(FAX)

여성의 눈으로 본 영화사와 드라마

여성문화예술운동을 새롭게 전개하고자 하는 여성문화예술기회은 '여성의 눈으로 본 세계영화사와 방송드라마'란 프로그램을 선 보일 예정이다.

'여성의 눈으로 본 세계영화사'는 각 나라 영화 속에 비쳐지는 역사와 문화 여성의 삶, 영화의 발전과정, 여성감독의 영화를 다룬다.

선정적이고 흥미위주의 드라마에 대한 여성 시청자들이 올바른 시각을 갖도록 마련된 '여성의 눈으로 본 방송드라마'는 최근 방송드라마의 경향과 배경, 분석을 내용으로 한다.

INTERVIEW & INTERVIEW

전국총판 서울출판유통 전화 (02)36.35-5364~9

목빠지게 기다리는 사람은…

• 자칫 지루해질 수 있는 내용을 아주 흥미있고 재미있게 만든 책

회사가 면접&면접

취직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취직 시험 — 그 최대관문은 결코 TOEIC 고득점도, 필기 시험 합격도 아닙니다.
이제는 면접으로 판정이 납니다!!

취직과 면접시험 —
면접을 형식적인 절차, 의례적인 것 정도로 치부해 버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전혀 다릅니다.
면접시험은 취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마지막 관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TOEIC 성적이나 필기시험 성적이 뛰어나다고 자만할 수가 없는 때입니다.

• 이 책은 이렇게 다릅니다
■ 올린 면접관련서와는 본질부터 그렇게 구획되어 있습니다.
■ 수많은 기업강의교재를 만든 노하우를 녹여넣은 기업이 강조하고 요구하는 인재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 솜씨있는 지문하고 든든한 뒷받침이 고정된채 틀을 벗어난 VCL 기법 시도했습니다.
■ 시간이 몇가는 취업준비생들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면접의 모든 것을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배려도 했습니다.

VCL 기법이란? (Visual Communication Layout)
시각적으로 교육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편집기법으로서 활자배열이 중심이고 시원하여, Layout이 읽기 쉽고 편안하게 구성되어 있고, 지면 공간은 하나의 내용을 돋고 있어 이해가 빠릅니다.

통신판매 예약실시! 주제별에서 소책판매 (솔이) 보내시면 총보는 보시나 부담없이 등기로 안전하게 우송해 드립니다.

보내실 곳 : 137-130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80-9 봉산빌딩 502호

홍보 및 판매 지원 서울미디어 (02) 579-5201·5202

학생청원심의위원회 규정

다음은 1994년 7월1일부터 시행된 학생청원심의위원회 규정입니다.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생청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의 기능,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원내용) 본교의 학부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이하 "재학생"이라 한)는 다음 각호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1. 전임교원 또는 강사의 성적평가
2. 행정부서의 처분 또는 부작위
3. 기타 교내에서 발생한 학생의 신상에 관련된 문제

제3조(제한의 금지) 누구라도 타인을 도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심의를 청구할 수 없다.

제4조(위원회)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③위원은 교원, 학원, 재학생의 대표 각 2명을 위원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한다.
④교무위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⑤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사실의 조사를 위하여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서울 및 수원캠퍼스에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6조(주관부서) 학생처는 위원회의 행정적 지원업무를 담당하며 학생과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된다.

제7조(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청조요구권) ①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인, 청구인이 소속한 대학장·학과장, 지도교수 및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관계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전항에 의거하여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지정한 기일안에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의결방법)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부표권이 없으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0조(비밀유지) 본 위원회의 활동에 관련한 교직원, 재학생 및 청구인은 활동과정에서 지득한 사실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11조(심의청구) ①재학생이 청원심의를 청구할 때에는 학생처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원심의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생년월일
2. 소속대학, 학과 및 학년
3. 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②학생처장은 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하게 하거나 청구인에게 반려하여야 한다.

제12조(보충요구) 위원장은 청구서의 흠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예비심사) ①위원장은 전항의 경우 이외에는 위원회의 부의 또는 반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위원 중에서 3인의 예비심사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예비심사위원은 1주일 이내에 청구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 기한을 1주일 연장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예비심사 결과 청구내용이 위원회에 회부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밝혀 청구인에게 반려하여야 한다.

제14조(심의절차) ①위원회는 심의를 가치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여 30일은 연장할 수 있다.
②위원회가 청구인 또는 관계자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구두로 문답하는 경우에는 그 청취서 또는 문답서를 작성하거나 녹음하여야 한다.
③심의과정은 비공개한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심의청구의 취소) ①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음 때까지는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청구인이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2회이상 불응한 때에는 심의 청구를 취소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6조(내용 및 공표) ①위원은 청구인과 친족이거나 청구내용과 일정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②청구인은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그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7조(결정서 작성 및 송부) ①위원회가 학생 청원에 대하여 심의하여 결정한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결정서가 작성된 때에는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8조(심의결과 처리) 위원회는 청구인에게 통보하는 외에 스스로 건의서의 내용에 따라 시정 또는 개선을 위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부서 또는 관계인에게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9조(이송청구의 금지) 위원회는 심의하여 결정된 내용을 다시 심의청구하거나 동일한 내용을 이중으로 심의청구할 할 수 없다.

제20조(차별대우 등의 금지) 누구든지 청원심의의 청구를 하였거나 심의에 진여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21조(준용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련이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본 규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학생청원심의위원회